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 학생부 기재에 관해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지금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서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그리고 내신 5등급제를 골자로 한 2028 대입 개편안은 학교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특히 내신 1등급 비율이 기존 4%에서 10%로 확대됨에 따라 정량적 변별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됐고, 이에 학생의 학업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그중에서도 교사가 기록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의 무게감은 전례 없이 막중해졌다. 바야흐로 숫자로 줄 세우던 ‘성적표의 시대’가 저물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기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이상과 학교 현장의 행정적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위태로운 괴리가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학생부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담은 교육적 기록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나열장’이자, 교사의 주관적 재량권이 무소불위로 휘두러지는 ‘불공정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작성 주체인 교사의 역량과 태도 차이에 따른 ‘기재 불평등’이다. 어떤 교사는 최신 학술 동향과 학생의 탐구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완성해 주지만, 어떤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기계적으로 복사해 붙여넣는 이른바 ‘복붙’으로 일관한다. 학생의 잠재력이 아니라, ‘누구를 담임과 교과 교사로 만나느냐’에 따라 입시의 유불리가 결정되는 ‘교사 복붙’ 현상은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행정적 절차의 모순 또한 심각하다. 학사 일정은 엄연히 2월까지 이어지지만, 교원 인사 이동과 새 학년 준비라는 행정 편의 주의 때문에 대다수 일선 고교는 겨울방학 전인 12월 말에 학생부 작성을 사실상 마감한다. 이로 인해 1월과 2월의 교육 활동은 기록에서 증발하고, 교사들은 방학 직전 시간에 쫓기며 수백 명의 기록을 줄속으로 채워 넣는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은 철저히 배제된다. 학생부는 학생 본인의 삶을 기록한 공문서임에도, 학년이

마감되고 나이스(NEIS)를 통해 통보받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수정할 수도 없다. 평가의 핵심인 피드백과 성찰 과정이 생략된 채, 오직 결과론적인 텍스트만 남는 셈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인 ‘학생 주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록 시스템의 행정적 혁신이 필수적이다. 교사 개인의 문장력에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 AI 기반 기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기재 격차를 줄여야 한다. 단, AI가 만들어낸 편편일률적인 기록이 학생의 개성을 지우지 않도록 교사의 검수(Human-in-the-loop) 과정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평가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잘 쓰인 소설’과 투박하더라도 학생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진실된 다큐멘터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고도화된 평가 안목 없이는 고교 현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없다. 행정적 투명성과 평가의 전문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학교생활기록부는 입시의 도구를 넘어 진정한 교육의 기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JBS진로전략연구소장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우리는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나



기 지 수 첩
유 혜 온
(산업부)

방산 수출의 승부처는 더 이상 무기 성능만이 아니다. 이제 결과를 가르는 건 누가 상대국 정부를 더 설득할 수 있는 ‘제안의 구조’를 갖췄느냐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G2G 협력안, 이른바 ‘산업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수출에서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분명하다. 다만 현장에선 “방향은 맞지만 아직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경쟁 구도는 녹록치 않다. 독일은 이미 EU 차원의 유로 기금을 활용해 전방

위적인 산업협력과 로비를 캐나다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로비가 불법이고, EU처럼 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 공적 자금도 없다. 업계에서 “결과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협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질은 상대국 정부와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끌어당기는 종합 제안이다. 이 영역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카드의 종류와 규모가 상대적으로 얇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아이러니한 대목은 한국 잠수함 기술의 뿌리가 독일에 있다는 점이다. ‘원조’ 기술력에 더해 독일은 합법적인 로비와 대규모 산업협력 카드까지 쥐고 있다. EU 자금만 해도 100조원을 넘는다는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독일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또한 ‘워팀’을 강조한 정부 발표와 달리,

정작 현장에서는 실무 협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구조와 체감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물론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화에어 로스페이스는 과거 호주 AS21 ‘레드백’ 잠수함 수주전에서 독일 라인메탈을 제쳤다. 가격과 성능 경쟁력에 더해 본계약 과정에서 “호주에 공급하는 무기를 호주산 철광석으로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산업협력 제안을 내놓으며 줄어든 물량을 다시 늘린 사례다. 상대 정부가 무엇에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단일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G2G 협력을 어떻게 설계하고 산업협력을 어디까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가 왜 움직이는지를 냉정하게 읽어내는 전략이다.

/dhaledhal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9일 (음 11월 2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노력에 따라 발전을 가져온다. 48년생 도박에 돈과 노력을 쏟는 건 무모하다. 60년생 운이 있으니 주식보다는 청약을. 72년생 주변에서 권하는 것들이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것. 84년생 슬픔도 고통도 자기 성장이다.



37년생 사촌과의 경쟁은 후회만 남게 되니 양보를 하자. 49년생 주변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6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성취된다. 73년생 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85년생 막연한 희망보다는 작더라도 실천을 해야.



38년생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해야. 50년생 신세진 사람이 빛 갠으려 온다. 62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뿔뿔 일을 처리. 74년생 도무지 근거 없는 말들만 무성하다. 86년생 바쁘다고 서두르면 결과 없이 진행만 더디게 된다.



3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감사. 51년생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며 우울의 결과로. 63년생 신용으로 신뢰를 얻는 날. 75년생 뜻이 있으면 결국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8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40년생 오후에 교통사고 유의를. 52년생 아직계획은 보류하도록. 64년생 경력을 믿고 교만해야 부처님 손바닥처럼 얇은 수준이다. 76년생 세월이 지나고 보니 부모님 은혜가 태산같이 높다. 88년생 집 안 청소로 주변 환기를 해보자.



40년생 평소 겸손함으로 주변으로부터 신망을 얻는다. 52년생 바쁜 시간은 피해서 일을 보라. 64년생 대인관계에서 먼저주고 공과 사를 구별해야. 76년생 이상 문제로 시골시골. 88년생 직장에서 불평하기 전에 능력을 키우도록.



42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지 절이 옮겨갈 수는. 54년생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면 못할 것이 없다. 66년생 일이 바빠서 서두르다 다친다. 78년생 위험한 일을 미리 조심해서 대비하자. 90년생 정오부터 교통안전에 유의를.



43년생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는데. 55년생 동료 간에 협조가 필요하니 왕따로 따돌리지 마라. 67년생 소자본 창업은 좀 더 꼼꼼하게. 79년생 사전에 준비가 되어 뒷걱정이 없다. 91년생 잔소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만.



44년생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으나 너무 계산하지 않도록. 56년생 태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오니 기다려라. 68년생 선버른 이익은 끝까지 된다. 80년생 바람과 밝은 달을 대하여 즐겁다. 92년생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여 돈 자랑 말라.



45년생 과다한 투자는 삼가야. 57년생 말은 바 일을 열심히 해야만. 69년생 기척으로 발견되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 81년생 집을 설계하는데 마음이 맞아 고마운 일. 93년생 남과 비교되는 일은 사람 사는데 항상 있는 일.



46년생 머리가 복잡하니 매매 결정은 미루라. 58년생 배우자가 나의 조력자이니 감사. 70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밤중에 걸어 다니는 상황. 82년생 복권이 되려면 복권을 사야 하듯 일을 일단 시작해야 되던 안 되던. 94년생 매일 공부하자.



47년생 함찬 변화가 있으니 외모에도 조금 신경 쓰도록. 59년생 한 걸음만 가면 행운이 온다. 71년생 기술 쪽 재능을 공부. 83년생 화합의 원앙지계(鸞之契)도 양보에서. 95년생 삼재 팔관 관재구설이라 했으니 삼재 기도를 신청해보라.

김상회의四季

애국의 기준



필자의 월광사 오랜 신도로, 그는 출장이나 비행기를 경유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자의로는 일본이나 중국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 때 항일 독립운동으로 고초를 겪은 분들이 부지기수지만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후 끌려가 겪은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의 내용을 글에서 읽고는 여자로서 후대인인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의 중앙이라는 지나친 중화민족 자의식, 동방공정과 티베트에 대한 압제 등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한다. 그 신도는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다. 우리나라의 H사 차츰만 다섯 번에 걸쳐 바뀌었는데, 지금 차를 바꿔야 하는 시점에 가족들은 내구성과 연비성 등 장점을 내세우며 일제 차를 권했다.

과거 한국 주부들의 로망 가전제품에 해당했던 그 코끼리 밥솥도 안 샀었는데, 귀족노조로 변질한 노조를 생각하면 가족들 의견을 따라야 하나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조금은 다른 차원이겠지만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 후에 변절한 유명인사들이 있다. 최남선 이광수 등 사회적 유명인사들이다. 일제로 변절한 뒤 매일신보 사장 및 일본 중추원 참의원까지 지낸 최린 역시 대표적 변절자에 속한다. 광복 후에 자신의 변절을 회개하긴 했으나 최린이란 인물은 또 다른 이유로 필자의 뇌리에 있는 사람이다. 근대 최초의 신여성 화가로 불리는 나혜석과의 인연이다. 그녀와 바람을 피운 장본인이지만 나혜석은 이 일로 세간의 온갖 비난은 물론 이혼까지 했고, 정신병원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으나 최린은 사회적으로 더욱 승승장구했다. 시대적 지성들일지라도 나라에 대해서도 배신, 남자의 사랑 변절은 단죄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인가 보다. 필자는 신도에게 일본차 사는 거, 실용적으로 생각하라고….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2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